

남송에 간 고려 사신

한족이 세운 북쪽의 송나라는 군사강국은 아니었다. 거란족의 요나라와 수차례 전쟁을 했지만 승리하지 못한 채 국력만 낭비했다. 북송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연합하고 나서야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금나라 태종은 동맹을 파기하고 북송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결국 2년 만에 금나라 군사는 북송 수도 변경((汴京, 개봉)을 함락하고 태상황제였던 휘종과 당시황제인 흠종 및 황후와 궁녀, 신하 등 3천여 명을 포로로 잡아가 만주 오국성에 연금시켜버렸다.

그때 휘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자 흠종의 이복동생인 강왕(康王)은 건강(建康, 남경)으로 도망가서 송 황조를 재건해 남송의 고종 황제로 등극했다. 고종 황제는 고려 인종7년(1129) 임안(臨安, 항주)에 임시 도읍을 삼았고, 3년 뒤에는 임안을 남송의 수도로 삼았다.

고려는 요나라부터 금나라 때까지 송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폈다. 송나라가 군사동맹을 맺자고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고려는 요나라, 금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대국인 북방의 요나라, 금나라와 조공관계를 유지하는 척하면서 송나라와도 눈치껏 교류를 해왔던 것이다.

송나라는 고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위협을 가할

수도 없었다. 고려가 바닷길을 터주면 금나라가 바로 공격해 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고려 사신이 송나라에 가기만 하면 큰 환대를 받곤 했다. 바로 이런 관계를 이용한 고려는 금나라의 은과 모피, 말 등을 송나라에 중계무역하여 이익을 챙겼다. 고려로서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거기에다 고려 사신들은 송나라가 북송에서 남송으로 바뀌자 오히려 오가기가 수월해졌다. 북송의 수도 변경을 가려면 1달 이상이 걸려야 했는데 남송의 수도 임안은 훨씬 더 가까웠다.

인종10년(1132) 2월.

정6품의 예부원외랑 최유청(崔惟淸)과 정7품의 함문지후 심기(沈起) 등은 개경의 벽란도에서 남송의 명주로 떠났다. 남송 고종 황제에게 주청할 일이 있어 떠난 진주사(陳奏使)였다. 고종 황제에게 주청할 주요내용은 고려 사신을 의심하지 말고 예전과 같이 환대해달라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고종 황제가 고려 사신을 멀리하는 듯했던 것이다. 실제로 인종7년에 고려 사신이 남송에 가려고 했을 때였다. 고종 황제는 그 보고를 받고는 시종하는 신하 여신호에게 말했다.

“상황(上皇)이 내신, 궁녀 각각 2인씩을 보냈는데, 그들이 조공하는 고려 사신을 따라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짐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픔과 기쁨이 겹치는구나.”

상황은 북송의 흠종이었다. 여신호가 고종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며 아꼈다.

“폐하, 이것은 필시 금나라 사람의 뜻일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려로서는 필연코 그런 일을 감히 하지 못하옵니다. 우리의 허실을 정탐한 뒤 금나라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알겠다. 짐은 고려 사신이 오는 것을 조서를 내려 중지시키겠노라.”

고종 황제의 조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왕은 오랜 동안 왕업(王業)을 지켜 옛날부터 문자와 역사(車軌)가 우리와 똑같았으며, 뗏목을 탄 사신에게 명령하여 조공하는 예를 계속 지키게 해왔소. 그 충성이 변함없는 것이야말로神明(神明)에게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을 터. 마침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쁘게 여겼소. 짐의 만년에 실로 변고가 많아 온 백성들이 강적인 금나라의 침입을 받았소. 그들은 이미 국경을 깊숙이 짓밟고서도 병사를 일으켜 침입을 중지하지 않고 있어 무기와 군사를 잠시 강호로 이주시켰소. 만약 이때에 사신이 정말 온다면 우리 관원이 고려 사신의 신변을 경호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니 변방의 난리가 그침을 기다려 빙문(聘問, 예를 갖춰 방문함)할 시기를 다시 정하시오. 사신의 수레를 들여 놓기 위하여 진관(晉館)을 무너뜨림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빗장을 달고서 조공을 거절한 것은 전례를 따른 것이 아니오. 평소의 고려의 마음을 헤아리건대 짐의 뜻을 이해하리라 믿소.>

작년에도 고려 사신을 거절하였다. 고려 사신을 의심한 예부시랑 유약이 “사명(四明, 명주)이 무너진 뒤로 황폐하고 미약하므로 침입할 마음을 품을까 염려스러우니, 마땅히 많은 군사들을 주둔시켜 고려 사신이 오는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고 주청하자 고종 황제는 고려 사신 일행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유약 등의 신하를 송 사신으로 보내려

했다.

그러니까 최유청과 심기 일행은 인종이 밀어붙여서 가는 형국이였다. 사신 일행을 태운 명주로 가는 고려의 장삿배는 풍량이 거뻐지만 계절풍인 북풍을 받아 속도가 빨랐다. 군산도와 흑산에서 1박씩 하며 필요한 식량과 물을 구한 뒤 순조롭게 항해했다. 특히 흑산 무심사에서서는 청자 기물들을 선실 창고에 가득 실었다. 사신의 왕래를 대비해서 청자운반선이 탐진과 흑산을 미리 오갔던 것이다. 물론 송나라 상인 송상과 왜국 왜상들이 직접 탐진 미산포를 오가며 청자를 사가기도 했지만 최상품은 아니었다. 최상품 청자는 개경 왕실에서 반출을 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배가 흑산을 지났을 때 심기가 최유청에게 말했다.



“황제 폐하가 후대는커녕 박대하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소. 두 번씩이나 우리 사신이 가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말이오.”

“원외랑 나리께서는 황제 폐하가 왜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금과 송이 직접 교역하는 것을 우리 폐하께서 막으시니까 그런 줄 알고 있소. 그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다가 금과 송이 동맹을 맺으면 우리 고려는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아니겠소? 이때 우리가 금과 송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하면 우리 이문을 불리는 이점도 있고 말이오.”

조희 같은 의례를 담당해온 합문(閤門)의 관원인 심기는 외교 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최유청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황실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사신 일행의 신변보호를 위해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한 적도 있소.”

“사신 일행에게 무슨 호위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만 알현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요. 폐하께 조공하는 물건 말고 내가 사적으로 가지고 가는 진귀한 물건들은 교역하기 위해서라오. 송나라 관원이나 상인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소.”

이번에 고종 황제에게 조공하는 진상품은 금 1백 냥, 은 1천 냥, 비단 2백 필, 인삼 5백 근 등이었다. 그밖에 것은 최유청이 교역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물건이었는데, 탐진 청자항아리나 청자향로, 청자벼루와 나전칠기, 화문석 방석, 인삼, 합죽선, 종이, 붓, 떡 등도 있었다. 모두 합쳐서 조공품의 3분의 1정도나 되었다. 황제를 알현한 뒤 객관에 머물면서 송 관원의 협조를 얻은 뒤 교역할 수 있었던바, 그것을 사행무역(使行貿易)이라고 했다. 사행무역은 송나라 사신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송나라의 의복, 상아, 물소뿔, 옥제품, 술, 새(鳥), 차, 옷칠제품, 약기 등을 개경으로 가지고 와서 교역했던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풍량이 좀 더 거세졌다. 배는 아직도 흑수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최유청과 심기는 선실로 들어가 몸을 누였다. 돛잡이와
공사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하루에 2교대를 하고 있었다.
노잡이들은 노를 잡지 않고 있을 때는 취사를 준비한다든지, 갑판청소
한다든지 잡일을 했다.

두 사람은 배멀미 탓에 잠들지 못하다가 자정 무렵에야 토막잠을 잤다.
그러다가 이른 새벽에 우두머리 행수공사의 고함소리에 일어났다. 공사들이
갑판 위를 쿵쿵 뛰어다니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최유청도 갑판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행수공사가 말했다.

“송구들이 나타났다가 우리가 고함을 치니까네 사라졌습네다.”

“아직도 여기 바다에 해적이 있는가?”

“가끔 장삿배를 상대로 해적질을 합네다.”

송구(宋寇)란 송나라 해적을 말했다. 그러나 고려 상인들이 더 두려워
하는 것은 금나라 해적이었다. 금나라는 항해술이 자못 발달해 언제
흑수바다나 백수바다를 휘젓고 다닐지 몰랐다. 때문에 언젠가는 금나라
해적이 출몰할 것이라고 봐야 옳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금나라 군사나
해적이 고려 사신을 괴롭힌 적은 없었다.

고려 사신이 송나라 명주를 드나드는 것은 금나라가 알지 못하는
기밀이었다. 금나라는 요나라 땅이었던 중원을 평정하는 데만 힘을
쏟았지 아직은 송나라로 가는 바닷길의 편리함은 모르고 있었다.
만약에 바닷길을 안다면 언젠가 남송을 침공하거나 차츰 해상무역을
장악해 버릴 터였다. 최유청이 행수공사에게 점잖게 말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무리는 따로 있소.”

“나리, 어떤 무리입네까?”

“금나라 사람들이오. 금나라 동쪽에는 참으로 넓은 바다가 있소. 그래서 인지 항해술이 우리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하오.”

“앞으로 큰일입네다.”

“괜찮소. 금나라는 중원 땅에서 저항하는 요나라 절도사들과 싸우는데 정신이 없소.”

“다행입네다.”

그때 심기가 나와 말했다.

“원외랑 나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판이 시끄러워서 나와 보았소.”

“해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소. 바다에는 해적, 육지에는 도적떼가 날뛰는 세상이오.”

“우리가 가는 명주에도 도적떼가 있다는 말입니까?”

“숙소에 가면 얼마 동안 묵는데 도적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조공품을 훔쳐갈 수도 있소. 그래서 황제의 군사들이 와서 경계를 서는 것이오. 군사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여의치 않으니까 황제 폐하가 우리 사신이 오는 것을 거절했던 적이 있소.”

보름 후.

사신을 태운 배는 백수바다로 진입했다. 백수바다로 들어섰다는 것은 명주가 가까워졌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명주의 백수바다는 바다 밀이 보일 정도로 맑았다. 갯벌이 없는 수심이 깊은 바다였다. 실제로 한 나절 동안 남서쪽으로 항해하자 명주 도시가 보였다. 개경 벽란도를 떠날 때 부터 입을 꼭 다문 채 긴장했던 선장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돛잡이

요수, 닷잡이 정수, 노잡이 방인, 키잡이 타공, 공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모두 갑판으로 나와 만세라도 부를 기세였다.

배가 포구에 정박하자, 명주성 압아가 두 명의 군관을 대동하고 올라와 검색을 시작했다. 최유청은 역관을 앞세워 통역을 시켰다. 최유청이 압아에게 말했다.

“나는 고려 사신입니다. 황제 폐하를 알현하러 왔소.”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했소. 배 안 선실부터 검색하겠습니다.”

압아가 군관을 선실로 내려 보냈다. 그런 뒤 최유청에게 물었다.

“고려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소?”

“보름하고 닷새가 지났소. 순한 북풍을 만나 도움을 크게 받았소.”

“해적은 보지 못했소?”

“백수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보기는 했으나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사라졌소.”

“공사들을 보고 달아났을 것이오.”

압아는 차갑게 물었지만 고압적이지는 않았다. 최유청은 개경을 떠날 때 김부식에게 송나라 관리를 만나면 선물을 주라고 한 말이 떠올라 얼른 선실로 내려가 비색청자벼루 한 개를 가지고 올라왔다. 비색청자벼루를 압아에게 주자, 그의 표정이 좀 전과 달리 부드러워졌다. 그가 군관에게 지시했다.

“고려 사신 분들을 고려사관으로 안내하라.”

고려사관(高麗使館)은 15년 전에 고려 사신과 상인들을 위해 명주성 안에 지은 숙소였다.

“예, 호마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비색청자벼루 한 개의 위력에 최유청은 적잖이 놀랐다. 북송 때부터 송나라를 여러 번 드나들었던 역관에게 송나라 관원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중에 비색청자가 으뜸이라고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군관이 하선한 뒤 바로 명주성 군사들이 호마 세 마리를 끌고 왔다. 한 마리는 압아가 탔다. 최유청과 심기는 두 마리의 호마에 올랐다. 명주성 군사들이 명주관청으로 들어가는 성문에도 도열해 있었다. 사신 일행은 명주 성문을 지나 무역사무를 보는 시박사무청(市舶事務廳)과 과세를 관장하는 시박사(市舶司) 건물을 지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명주성 안에는 월호라는 둥그런 호수까지 있었다. 명주지주(明州知州)가 공무를 보는 명주관청은 성 안쪽 끝에 있었다. 고려사관은 명주관청 앞뜰 왼편에, 아라비아상인의 숙소인 파사관(波斯館)은 오른편에 있었다.

명주성에서 신라사신 일행의 접빈 책임자는 명주지주였다. 그런데 그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압아가 신라 사신이 고려사관에 들었다고 보고하자 시큰둥하게 말했다.

“오랑캐들 중에 고려 사신 일행은 그나마 예의가 있는 자들이니 섭섭하지 않게 해주게.”

“요나 금의 사신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전에 명주지주를 지낸 증공(曾鞏)이 말했네. 고려는 오랑캐 중에서는 문학에 통달하여 지식이 대단하므로 덕으로 품어야지, 힘으로 굴복시키기는 어렵다고 말이네.”

그들끼리 있을 때는 고려 사신을 오랑캐라고 불렀다. 그래도 몽골이나 거란, 여진, 왜국 사신들과 달리 예의가 있고 문학에 소양이 깊다며 인정해주기는 했다.

최유청 등이 고려사관에 머무는 동안 명주지주가 의례적인 연회를 한번 베풀어 주었다. 최유청은 답례로 비색청자주전자를 선물했다. 그 역시 압아처럼 사신들을 무시하던 태도를 슬며시 바꾸었다. 다음날, 명주관청 앞의 당전으로 최유청과 심기를 불러 술과 차를 대접했다. 명주지주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려 비색청자가 천하제일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직접 네 눈으로 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오. 휘종 황제 폐하 이래 관요인 여요에서 나는 청자는 황실과 귀족만 사용할 수 있다오. 그런데 고려 비색청자는 여요 청자를 능가하는 것 같소.”

“지주 나리, 과찬의 말씀이오.”

“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यो. 고려 비색청자는 파사관에 머물고 있는 아라비아 상인들 손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같소. 여요 청자는 이미 그들 손에 들어갔지만 고려 비색청자는 천하제일의 보물이니 우리나라에만 있어야 하오. 천하제일의 보물은 황제 폐하께서만 가지고 계셔야 하오. 나는 즉시 황제 폐하께 주청을 드릴 것이오.”

“비색청자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고려 사신으로서 새삼 자부심이 느껴지오.”

“일찍이 휘종 황제께서 ‘청자는 고려 비색청자이고, 백자는 송의 정요 백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소.’

“저희 인종 폐하 1년에 사신으로 고려에 온 서공이란 분이 비색청자를 보고 크게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오. 서공 사신이 고려의 나전칠기, 붓, 먹, 종이, 합죽선 등을 보고 그린 그림책이 전해지고 있소.”

“지주 나리께서 환대해 주시니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합니다.”

“신주(神舟)가 마련되면 곧 황도로 출발할 것이니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오.”

송 고종 황제가 있는 임안은 운하와 수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사신 일행이 타고 갈 관선(官船) 신주가 여의치 않아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송나라에서는 사신들이 1백 명 이상 타는 배를 신주라고 불렀다. 고려 사신 일행도 모두 50명이 넘었으므로 신주를 타야 했다.

그런데 황도 임안으로 갈 신주가 예정보다 빨리 마련되어 최유청 일행은 명주항을 떠났다. 임안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윤4월에야 임안에 도착한 고려 사신 일행은 접반사의 안내로 황궁 앞의 객관에서 여장을 풀었다. 조공품은 미리 객관 우드머리 관원에게 바쳤다. 최유청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청자 기물까지 더 보냈다. 황실의

관원들이 조공품의 내용을 확인한 뒤 친견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이었다.

황실에서 조공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사흘 후 고종 황제를 친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주었다. 진주사 최유청은 황제에게 주청할 말을 마음속으로 복기했다. 임안 천도를 축하한다는 인종의 조서를 올린 뒤에 바로 주청하려고 했다. 주청할 내용은 고려 사신을 의심하여 거절하지 말고 예전과 같이 환대해달라는 것이었다.

사흘 후.

최유청과 심기는 예부상서의 안내로 황실에 들어갔다. 조회를 여는 정전으로 가지 않고 후전(後殿) 앞에서 대기했다. 잠시 기다리자 고종 황제가 그들을 불러들여 접견했다. 고종 황제가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다며 위로의 말을 했다.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소. 천하제일 비색청자를 보니 짐은 고려인들의 충성이 변함없음을 알겠소.”

“황제 폐하께서 고려에서 온 소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읍할 따름이옵니다.”

“황도에서 편안하게 몇 달이고 심신을 추스른 뒤에 돌아가시오. 그대들에게 날마다 고기와 술을 하사하겠습니다.”

“황제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짐은 그대들을 또 부를 것이오. 대연회를 베풀어 반드시 그대들을 위로할 것이오. 오늘은 아직 조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해를 해주시오.”

고종 황제는 바로 최유청과 심기에게 금대(金帶) 두 개를 하사하는 동시에 고려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고종 황제는 후전에서 서둘러 나갔다. 최유청과 심기도 후전을 바로 나와 객관으로 갔다. 고종 황제가 몇 달이고 머물면서 편안하게 심신을 추스르라는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아 다리가 조금 휘청거리기도 했다. 최유청은 객관에 머무는 동안 가지고 온 청자를 비롯해서 고려의 물건들을 교역할 할 궁리부터 했다.<계속>